

"뉴질랜드 녹용, 이름표 달아라"

- 본회 뉴산 녹용에 국가 식별가능한 표식 요구, 불법유통 외산녹용 색출차원 -

본회는 불법유통되는 수입생녹용의 차단 및 효과적인 색출활동을 위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녹용 표면에 국가 식별이 가능한 고유 표식을 해달라고 뉴질랜드양육산업회(구 뉴질랜드양육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정식 요청했다.

본회는 뉴질랜드양육산업회 클라이브 저미 회장 앞으로의 공문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녹용의 대부분은 원료의약품으로 수입 허가됨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로 불법 반출, 국산으로 둔갑되어 국내 양육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히고 "최근 몇차례 단속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녹용 자체로는 원산지를 정확히 판별해 내기 어려워 지속적인 단속과 엄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녹용 외관에 국가 표식 처리를 요구했다.

표식 방법은 뉴질랜드 자육로 하되 불법외산녹용 유통인들에 의해 쉽게 변조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더불어 본회는 뉴질랜드에서 수출 전 행하는 살균, 세척 등의 과정이 적발된 녹용의 원산지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와 구분되는 세척액

혹은 살균제 등을 사용한다면 적발된 녹용 표면의 화학적 검사를 통해 이 물질의 추출 여부에 따라 내외산 구별이 가능하게 된다.

본회 관계자는 "녹용 외관상의 몇가지 특징만으로는 내외산 구별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뉴측에서 자국산 녹용 수출에 앞서 인두 등으로 전지 녹용 중간 쯤에 국가표시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스프레이로 표식을 하는 것 등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국가 식별이 충분히 가능해 불법 유통되는 수입생녹용을 확실히 적발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 요구사항을 뉴측이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양육산업회는 누차 '뉴질랜드산 녹용이 어디에서든 정확한 표기로 판매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본회의 요구를 저절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뉴질랜드양육산업회(Deer Industry Newzealand, DIN)는 최근 뉴질랜드양육위원회(Newzealand Game industry Board, GIB)였던 명칭을 뉴질랜드양육산업회로 바꾸고 공식 출범식을 갖은 바 있다. **한국양육**